

“도전·변화 DNA로 LG 없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세우자”

구광모 LG회장 2025 신년사

데이원 정신, 도전·변화 강조
ABC 혁신으로 고객가치 창출
임직원들도 신년사 영상에 등장
차별화된 가치로 지속가능 약속

구광모 LG 회장이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19일 전 세계 27만여명의 LG 임직원들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며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밝혔다.

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27만여 임직원에게 “미래 먹거리는 AI·바이오·클린테크” 메시지

구광모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9일 전 세계 27만여명의 LG 구성원들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다. /LG

기 위한 것이었다”며 “LG의 ‘데이원(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삶에 즐거움(樂)과 기쁨(喜)을 드리기를 위한 LG의 도전은 과감한 혁신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 최고의 역사를 만들고,

고객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차별적 가치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고객가치’의 중요성도 짚었다. 구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며 때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듯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LG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를 지목했다.

구 회장은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AI와 스마트솔루션, 건강한 삶과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바이오, 클린테크까지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임직원들도 신년사에 참여...사업별 미래 가치 공유

이번 신년사 영상에는 LG 구성원들

이 직접 등장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가치를 공유했다.

LG전자 생활가전(HS)사업본부 홍성욱 책임은 “AI가 적용된 가전이나 로봇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나를 알아서 케어해주는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다”며 “집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줄여주고 더 즐겁고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LG화학에서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인 조형진 연구위원은 “효능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신년사 영상은 을 초 새롭게 단장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저층부 공용공간인 ‘커넥트윈(Connectwin)’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커넥트윈은 ‘트윈타워를 연결한다’(Connect Twin)와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연결’(Connect to Win)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美서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아 K4 ‘2024 IIHS TSP’ 추가 아이오닉·코나 등 총 22개로 늘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 17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기아 ‘K4 2025년형’이 ‘2024 IIHS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에 새롭게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K4는 기아가 북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준중형 세단으로 최근 ‘2025 북미 올해의 차’ 승용 부문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TSP에도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K4의 TSP 선정으로 올해 현대차그룹에서 TSP+ 또는 TSP를 받은 차종은 현대자동차 9개, 제네시스 8개, 기아 5개 등 총 22개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선정이다.

브랜드 기준으로도 현대차·기아는 대중 브랜드 중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으며,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올해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투싼 등 현대차 4개 차종과 ▲G90 ▲G80 ▲G80 전동

화 모델 ▲GV80 ▲GV70(2025년형) ▲GV70 전동화 모델 ▲GV60 등 제네시스 7개 차종, 기아 ▲텔루라이드 1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TSP 등급에는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팔리세이드 ▲싼타페 ▲싼타크루즈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제네시스 ▲GV70[1](2024년형) 1개 차종, ▲K4 ▲EV9 ▲스포티지 ▲쏘렌토 등 기아 4개 차종이 선정됐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차현정기자



LG전자, 세계 최초 ‘무선·투명 올레드 TV’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현존 가장 진화한 TV 기술을 집약한 이 제품은 77형(대각선 길이 196cm)·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의 압도적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모두 적용했다. 제품 출하가는 5만9999달러(8700만원)다. /LG전자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스토어 이벤트 성료

기아프로야구구단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기념하며 고객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기념해 진행한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 경품 차량 증정식을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기아 지점과 대리점, 드라이빙센터 방문한 약 4만여명의 고객 참여로 진행됐으며 공정한 경품 추첨을 위해 부정 유입이나 중복 참여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을 거쳤다. 이벤트 경품은 ▲더 2025 EV9(1명) ▲더 뉴 EV6(1명) ▲더 기아 EV3(1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휴 유니폼(50명) 등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울산급 호위함 2척 건조 본계약

방사청과 8391억 규모 계약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IV’ 1, 2번함의 건조를 본격화한다.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은 수주로 ‘합정 명가’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울산급 배치-IV 1, 2번함 건조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8391억 원에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모두 6척이 건조될 울산급 배치-IV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크다.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은 후속함으로 배수량과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울산급 배치-IV는 ‘스마트 호위함’으로 이전 호위함과는 차별화된 사실상의 ‘플체인지’ 모델이나 다름없다. /차현정 기자

울산급 배치-IV는 성능개량 장비인 전투체계와 무장 4종, 신규장비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와 전자전장비-II의 체계통합이 이뤄진다. 또한 병력자원이 감소할 미래 작전환경에서 인력절감을 고려한 함정설계는 물론, 승조원의 운용·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안도 적용된다. 이 밖에 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제체계와 함께 고도화된 무인기 위협 대응 능력도 갖췄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III 5, 6번함에 이어 배치-IV 1, 2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사업인 KD X-I, II, III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인 한화오션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다. /차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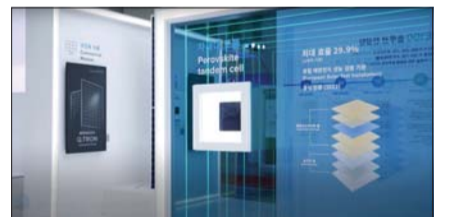
한화큐셀, ‘탠덤 셀’ 최고 발전효율 기록

M10 탠덤 셀, 발전 효율 28.6%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가시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양산에 적합한 규격의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셀(탠덤 셀)을 자체 개발, 세계 최고의 발전효율을 기록하며 차세대 태양전지의 최초 상용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섰다.

한화큐셀은 직접 개발한 M10 사이즈 탠덤 셀이 28.6%의 발전효율을 기록해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 소면적(1cm²)이 아니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듈에도 적용이 가능한 대면적 M10(330.56cm²) 규격의 탠덤 셀을 제작해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다.

한화큐셀이 연구개발 중인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과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시켜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차현정 기자



한화큐셀이 자체 개발 및 제작한 탠덤 셀 /한화솔루션

고효율 탠덤 셀의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24%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시중 실리콘 모듈 대신 26~27%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닌 탠덤 모듈을 설치하면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온도와 일사량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 폭이 작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탠덤 셀은 더운 기후나 흐린 날씨에도 실리콘 단일 셀에 비해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향후 한화큐셀은 탠덤 셀과 모듈의 성능 및 장기신뢰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